성실 • 경건 • 신념

"대진중원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18호 2018년 12월 13일(목)/계간

발행인 · 김두년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Campus News

02 하노이 하이테크기술대학과 국제교류 협약 체결
02 작업치료학과, 최우수 교육기관 인증 획득
02 2019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및 실기고사 실시
02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8 괴산 취업박람회' 개최
03 상생교양학부 장경욱 교수, 주이라크 대사 임명
03 '중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 성료
03 우리 대학 괴산 청년공동체 '휴먼오가닉' 팀, '2018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진대회' 공동체상 수상
03 협약식
04 항공서비스학과 임지은 · 박찬규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04 '간호학과 제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04 취·창업 지원센터 '취·창업 카페 오픈식' 개최
04 학교단신

Students News

05 항공운항학과, 공군 조종장학생 8명 최종 합격
05 '2018 횡성한우배 전국 대학 골프대회' 개인전 우승
05 말산업융합학과, '제54회 회장배 전국 승마선수권대회' 입상 쾌거
05 '제3회 START-UP 아이템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Social News

06 '괴산 119 안전문화 축제' 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시
06 '괴산군장애인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식' 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06 '2018 괴산고추축제' 행사 적극 동참
0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올바른 이닦기 실천을 위한 인형극 개최
07 'Together We 괴산' 지역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07 연극영화학과, 지역축제 재능기부 활발
07 중원대 학생들의 사랑의 재능기부

JWU in 人

08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는 중원인이 되십시오 – 장경욱 교수 인터뷰
08 천하장사 만만세 – 우리대학 씨름부
09 또 다른 세계, 가슴 뛰는 꿈을 찾다

Life in JWU

10 스물 건강 여든까지
11 쇼미 더 다이어트
12 통학생을 부탁해
13 JWU 더 꼰대 라이브

Healing Campus

14 '너에게 닿기를' – 너에게 전하지 못한 나의 진심
15 전지적 친구 시점

Special

16 중원대 미래 인재들의 첫 발자국을 담다

Career

17 프로면접러를 위한 간절한 외침!
18 나만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다!

JWU Festival

19 중원의 사랑을 싣고
20 JungWon Festival

하노이 하이테크기술대학과 국제교류 협약 체결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과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팜쉔카 총장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베트남의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유학생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중원대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과 이상열 비서홍보실장, 권정현 교학지원처장, 정명희 국제교류원장 등은 10월 5일 베트남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Hanoi Vocational College of High Technology)을 방문해 대학 간 △교수 및 학생 등 인적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자료 교환 △공동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등에 합의했다.

베트남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은 2010년에 설립된 하노이 인민위원회 산하의 국립대학으로서 컴퓨터공학부, 전기전자학부, 자동차학부, 그래픽 디자인학부, 경영회계학부, 뷰티케어학부, 경제외국어 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원대에도 이 대학과 연계되는 학과를 모두 갖추고 있어 대학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다.

특히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의 Pham Xuan Khanh 총장은 중원대의 의료뷰티케어학과와 항공서비스학과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내년에는 항공관련 학과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협약식을 마친 후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 일행은 대학의 주요시설을 돌아보고 뷰티케어학부와 경제외국어학부의 한국어반 학습과정을 시찰했다.

또한 베트남 국영방송사인 VTC(Vietnam Television Corporation)에서는 이날 협약식의 전 과정을 취재하여 베트남 전역에 방영했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VT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유학생의 진로가 밝다"며 "중원대에 유학을 오는 베트남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기숙사 제공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유학생들의 학업과 대학생활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는 이날 협약식과는 별도로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200여 명에 대한 현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하노이 시내에 위치한 고등학교인 NGUYEN DU HIGH SCHOOL을 연이어 방문해 해당 고등학교에서 6개월간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후 중원대로 유학을 오는 '중원대 유학반' 개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편집부〉

작업치료학과, 최우수 교육기관 인증 획득



▲작업치료학과가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교육인증 획득 및 작업치료 교육인증 최우수 교육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작업치료학과가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교육인증 획득과 동시에 작업치료 교육인증 최우수 교육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WFOT 및 작업치료 교육인증은 작업치료교육과정 제반 지원 시스템을 평가해 국내 작업치료 교육의 질적 향상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업치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비전 및 학과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원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분야 31개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중원대 작업치료학과는 지역 보건소 및 보훈지청 등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교육과 1천 시간 이상의 전일제 임상실습 교육 등 인성함양을 겸비한 실무능력 증진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신수정 작업치료학과장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치매극복 선도대학'으로서 노인치매 중심 작업치료 교육 및 다양한 보조기기 활용 실습중심 교육 등 학과 특성화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 복지사회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 작업치료학과는 2016년 첫 졸업생 배출을 시작하여 2년 연속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생 전원이 합격했으며, 매년 주기적으로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 치매 인식개선 교육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2019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및 실기고사 실시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이 수시모집 응시생에게 찹쌀떡을 나눠주고 있다.

우리 대학이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2019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및 실기고사를 실시했다.

이번 수시모집 면접 및 실기고사는 지원자의 자기계발능력, 전공적합성, 영어구사능력, 인성 및 사회성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학과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과 소개 및 대학생활 안내, 학과별 진로체험과 건강검진 및 혈압·혈당체크, 인문학특강, 캠퍼스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면접고사 전·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중원대를 방문한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간식과 합격의 찹쌀떡을 나눠주고 예비 신입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중원대를 찾은 수험생들이 면접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고 생동감 넘치는 대학 생활을 입학 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수험생들이 면접·실기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중원대에서 자신의 잠재역량을 발견하고 더 큰 꿈을 실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는 지난 9월 14일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936명 모집에 4983명이 지원해 5.3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경쟁률 4.85대 1에 비해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 관련 기사 16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8 괴산 취업박람회' 개최



▲우리 대학에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괴산 취업박람회를 진행했다.

우리 대학 취·창업지원센터가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 대운동장에서 괴산군 및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18 괴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원대 재학생 및 졸업생과 괴산지역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취업을 돕고 지역사회 기업체와 구직자간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17개 관내 기업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통해 인재채용의 기회를 가졌으며, 구직자들은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면접기회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박람회가 학생들과 괴산군민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면접기술 등을 습득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진로상담 시스템과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채용부스 운영 외에도 무료 증명사진촬영, 메이크업, 적성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지원 정보제공 및 취업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편집부〉

우리대학 상생교양학부 장경욱 교수, 주이라크 대사 임명



▲장경욱 교수가 이라크 대사로 떠나기 전 연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상생교양학부 장경욱 교수가 10월 29일 발표한 외교부의 공관장 인사에서 주이라크 대사로 임명됐다. 외교부는 이번 인사에서 상하이 총영사를 포함해 대사 9명, 총영사 4명 등 13명에 대한 공관장 인사를 단행했으며, 장경욱 교수는 신임 주이라크 대사로 발탁됐다.

장경욱 교수는 오는 11월 12일 이라크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사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장경욱 교수는 지난 30일 중원대에서 마지막 교양수업을 마치며 "중원대에서 수년간 젊은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쌓은 경험이 향후 젊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원대 학생들의 해외 진출도 돕고 대사로서의 임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경욱 교수는 육사 36기 출신으로 국군정보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부장,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겸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국군기무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중원대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 관련 기사 8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중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 성료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이 '중원 어울림 한마당'을 맞아 축제 기념사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우리 대학이 10월 16일부터 사흘간 대학 캠퍼스 일대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중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축제 첫날인 16일에는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과 이차영 괴산군수, 김유종 괴산소방서장, 이귀자 중원청소년문화복지센터 이사장, 대학구성원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내외빈 축사 및 축하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축하공연으로 펼쳐진 문화복지센터 청소년들의 악기연주 및 합창, 댄스 공연은 축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재학생들의 장기자랑과 이벤트 게임, 세계음식 문화체험, 행복나눔장터, 건강관리 부스운영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공연, 충북금연지원센터 금연캠페인, 충북보건소 절주캠페인, 지역상인 먹거리장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축제인 동시에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중원대는 이번 축제 중 부대행사로 지역주민과 재학생들이 대학에 바라는 점을 적은 손편지를 나무에 거는 '소망나무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취합된 다양한 의견을 교육 및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축제는 중원대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대학과 지역주민이 함께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대학축제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우리 대학 괴산 청년공동체 '휴먼오가닉' 팀, '2018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진대회' 공동체상 수상



▲2018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진대회에서 공동체상을 수상한 괴산 청년공동체 '휴먼오가닉'팀

우리대학 재학생들과 지역청년들로 구성된 청년공동체 '휴먼오가닉'이 11월 1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서울 용산 아이컨벤션에서 개최한 '2018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진대회'에 참가해 공동체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괴산 청년공동체 최상범 멘토(중원대 창업보육센터장), 이지선(중원대 한국학과4년), 김가연(중원대 식품공학과3년), 심희조(괴산 귀농청년), 김보규(중원대 연극영화학과 1년), 권오조(괴산군 민간협력팀 주무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한 '휴먼 오가닉'은 '유기농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괴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중원대 최상범 교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 되어있는 괴산지역에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과 청년일자리, 그리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 괴산지역 청년활동가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 정착을 위한 공동체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휴먼오가닉'은 지난 11월 2일 중원대 CEO룸에서 지역청년, 지역상인회, 공동체 전문가, 괴산군 관계자 등 30여 명과 함께 'Together We 괴산'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발굴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부〉

PHOTO NEWS 협약식



▲ 괴산소방서와 소방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이 10월 31일 괴산소방서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우수 소방인재 양성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이 9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희만)와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 하노이 하이테크기술대학과 국제교류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이 10월 5일 베트남의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과 교수 및 학생 등 인적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자료 교환 △공동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 괴산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 체결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 10월 23일 괴산군청에서 괴산군과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차 위탁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단신

1 ‘드론기초운영과정 교육 개강식’ 개최

우리 대학이 9월 3일 오후 4시 CEO룸에서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 김대희 괴산부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및 교육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기초운영과정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군민의 혁신역량 강화와 미래산업의 새로운 취·창업 분야 개발을 위해 지역 맞춤형 항공방제 및 농업용 드론운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괴산군의 예산을 지원 받은 중원대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했다.

2 ‘2018학년도 국제융합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수상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2018학년도 국제융합캡스톤디자인 SPIED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포함해 참가학생 5명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스마트 거실’을 만든 생체의공학과 김민수 학생이 대상을, ‘낙상 방지 시스템’을 만든 손민규 학생이 발표상을, ‘지능형 쓰레기통’을 만든 제약공학과 김성경 학생이 아이디어상을 수상했으며 생체의공학과 윤준호 학생과 전기전자공학전공 이승훈 학생이 도전상과 베스트 에세이상을 수상했다.

3 ‘제4회 소양강배 전국장사 씨름대회’에서 선전

씨름부가 강원도 춘천시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소양강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대학부 개인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 대학부 용장급(-90Kg)에 참가한 김지혁(레저스포츠학과 3학년)과 용사급(-95Kg)에 참가한 김성환(레저스포츠학과 2학년) 학생이 각각 2위를 차지하며 중원대 씨름부가 지난해에 이어 전국대회에서의 선전을 이어갔다.

4 말산업융합학과,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말산업융합학과가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에서 개최된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대한승마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등이 후원하는 전국단위 승마대회로 곽민지 학생(말산업융합학과 1학년)이 대학부 마장마술 A클래스에 참가하여 3위를 차지했다.

5 ‘청년취업 두드림 사업’ 우수한 성과

재학생들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 사업’ 교육연수생 시상식에서 교육 우수연수생과 우수영상 제작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사업에 참여한 전국 41개 대학 총 400여 명의 교육 연수생 중 중원대 이승훈(경영학과)과 신동주(항공재료공학과) 학생이 교육 우수연수생상을 수상했다.

항공서비스학과 임지은·박찬규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임지은 교수 ▲박찬규 교수

항공서비스학과 임지은 교수가 지난 11월 3일 대한관광경영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임지은 교수는 ‘호텔직원의 성격특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주인의식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학회로부터 관광학 분야의 학문연구 및 산업실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지난 6월 임지은 교수의 논문 ‘The Role of Job-esteem between Psychological Ownership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f Hotel Employees’가 (사)사람과 세계경영학회(P&GBA)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Global Business and Finance Review’에 게재됐다.

이에 앞서 박찬규 교수는 지난 5월 25일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로부터 ‘우수학자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박찬규 교수는 ‘대학생 토익 성적 향상도에 미친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효능감 차이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학회로부터 학술지 ‘영어영문학연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는 지난 1967년에 창립한 국내 영미어문학 분야의 대표적 학회로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영어영문학연구'를 매년 4차례 정기 발간하고, 매년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편집부〉

‘간호학과 제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제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호학과가 11월 13일 오후 2시 본관 대강당에서 ‘제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중원대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과 주요 보직자, 간호학과 재학생과 학부모, 대한간호협회 충북간호사회장과 임상실습병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예비 간호사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선서식에 참여한 74명의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들은 나이팅게일의 인류애와 생명존중의 간호정신을 이어받아 전문직 간호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하며 예비 간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또한 선서식에 이어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진정우 학생(간호학과 2학년)은 대한간호협회 충북간호사회 간호장학생으로 선발돼 박미숙 충북간호사회장으로부터 장학증서를 전달 받았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오늘의 선서식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사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하는 시간이다”며 “앞으로 간호학과 재학생들이 아프고 소외된 이웃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해줄 수 있는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2015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중원대 간호학과는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3년 연속 응시생 전원이 합격했으며, 2019학년도부터 의료보건 전문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33명 증원하여 98명을 선발한다. 〈편집부〉

취·창업 지원센터 ‘취·창업 카페 오픈식’ 개최

취·창업 지원센터가 11월 13일 본교 재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창업 카페’ 오픈식을 개최했다.

취·창업 카페는 취업 및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취·창업 관련 연구, 회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및 공간을 지원한다. 또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취창업 상담, 직무별 취업알선,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업훈련 연계, 청년취업인턴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취창업 카페 오픈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춘 취·창업지원센터장은 “취·창업 카페가 재학생 취업과 창업의 전문성과 경쟁력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학생들이 자주 방문해서 진로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창업지원센터는 지난달 괴산군 및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18 괴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민혁 기자 1010hmh@naver.com

항공운항학과, 공군 조종장학생 8명 최종 합격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실습모습

항공운항학과가 올해 총 40명을 선발하는 2018년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시험에서 8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시험에서 중원대 항공운항학과 2학년 1명, 3학년 6명, 4학년 1명 등 총 8명이 공군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이 학생들은 졸업 후 공군 장교로 입대하여 조종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시험인 시뮬레이터 테스트 및 조종적성검사, 면접 등으로 진행된 이번 시험에서 본교 무안 비행교육원 교육과정을 통해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3, 4학년 학생들은 200점 만점인 1차 시험에 30점의 가산점을 받아 최종 선발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우리 대학은 항공운항학과 재학생 중 공군 조종장학생을 희망하는 학생을 2학년 2학기부터 본교 무안 비행교육원에 입과 시켜 필기시험 대비 및 비행훈련 교육 등을 통해 시험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

나승혁 항공운항학과장은 "올해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시험에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대거 합격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항공인재 양성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항공조종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학년도에 신설된 중원대 항공운항학과는 현재까지 14학번 1명, 15학번 1명, 16학번 2명과 올해 8명의 합격생을 포함해 총 12명의 공군 조종장학생을 배출했다. 〈편집부〉

'2018 횡성한우배 전국 대학 골프대회' 개인전 우승



▲고나혜 횡성한우배 골프대회 우승.

레저스포츠학과 2학년 고나혜 학생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횡성군 옥스필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2018 횡성한우배 전국 대학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골프연맹이 주관하고 횡성군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 대학 골프대회로 고나혜 학생은 대회 여자프로 개인전에 참가해 1위를 차지했다.

고나혜 학생은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KLPGA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금숙 레저스포츠학과장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매년 전국 대학 골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는 2016년 '제33회 회장배 대학대항 골프대회' 단체전 우승과 지난해 '제34회 회장배 대학 대항 골프대회' 여자프로 개인전 우승(고나혜 학생)을 차지하는 등 대학부 골프대회 강자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 〈편집부〉

말산업융합학과, '제54회 회장배 전국승마선수권대회' 입상 쾌거



▲말산업융합학과 곽민지(사진 앞줄 왼쪽 첫 번째)

말산업융합학과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경북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 '제54회 회장배 전국승마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대한승마협회가 주최하는 올해 마지막 국내대회로 곽민지 학생(말산업융합학과 1학년)이 대학부 마장마술 S-1 클래스에 참가해 2위를 차지했다.

곽민지 학생은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전국승마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있을 전국대회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권정현 말산업융합학과장은 "말산업융합학과 학생들이 학과신설 첫해부터 각종 전국승마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말산업융합학과는 지난 6월 '2018 춘계전국학생승마대회'에서 정건호 학생(말산업융합학과 1학년)이 대학부 장애물 B클래스 3위와 A클래스 우승을 차지하고, 지난 8월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에서 곽민지 학생이 대학부 마장마술 A클래스 3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전국승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편집부〉

우리 대학 재학생들, '제3회 START-UP 아이템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제3회 START-UP 아이템경진대회'에서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수상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항공기계공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MCT(지도교수: 안석환)가 최근 충북 오송에서 열린 '2018 청년창업베이스캠프 제3회 START-UP 아이템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시상식에서 '인슐린 복대'라는 아이템을 출품한 중원대 항공기계공학과 동아리 MCT팀(김기선, 정영준, 조재민, 송문용 학생)은 최우수상 수상과 더불어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사)충청산학융합본부가 충북도내 청년창업인재 및 창업아이템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개최했으며, 충북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충북 6대 신성장동력사업인 바이오, 태양광·신에너지, 화장품·뷰티, ICT융합, 신교통·항공, 유기농·식품과 관련된 우수 창업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6개의 수상 팀을 선정했다. 또한 수상 팀에게는 상장, 상금과 함께 2019년 청년창업베이스캠프 창업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지도교수인 안석환 교수(항공기계공학과)는 "동아리 MCT팀의 '인슐린 복대'는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노인층이 제품을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인슐린 주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정한 시간대에 주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조재민 학생은 "평소 염두에 두었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결과물로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며 "대회참가와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을 주신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있을 각종 경진대회에서 더욱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아리 MCT는 지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개최한 'SW융합 아카데미 스타트업 부트캠프 피칭대회'에서도 이의성, 김성현 학생(항공기계공학과)이 도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편집부〉

‘괴산 119 안전문화 축제’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시



▲괴산군 홍범식 고택 광장에서 열린 ‘2018년 119 안전문화 축제’에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했다.

우리 대학 재학생 30여 명이 10월 2일 괴산소방서 주관으로 홍범식 고택 광장에서 개최된 ‘2018년 119 안전문화 축제’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소방 안전문화 체험을 위해 행사장을 찾은 지역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의 재미를 더해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뷰티헬스학과 학생들은 페이스페인팅과 네일아트,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캐리커쳐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ENT 동아리 학생들은 노래와 댄스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대학 재학생들은 대학에서 쌓은 전공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주요 지역사회 축제와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관련 기사 7면

‘괴산군장애인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식’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괴산군장애인복지관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우리 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30여 명이 10월 25일 괴산군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된 ‘괴산군장애인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식’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개관 5주년을 맞이한 괴산군장애인복지관 기념행사에 참여한 괴산군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전공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재능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중원대 뷰티헬스학과는 네일아트 및 손 마사지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간호학과는 건강상담 및 혈압·혈당체크 등의 건강관리 부스를 운영해 행사장을 찾은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진경 학생은(간호학과 3학년)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살려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에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는 물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동참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중원대 재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재능기부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2018 괴산고추축제’ 행사 적극 동참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2018 괴산고추축제’에서 축제 행사장을 찾아오신 괴산군민과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했다.

우리 대학 학생 홍보대사 ‘가람’과 자원봉사 학생 20여 명은 괴산군 문화관광과와 함께 메인부스와 행사장 곳곳에서 행사 안내를 지원하고 대학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뷰티헬스학과 학생 20여 명은 미스트 만들기,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등의 뷰티헬스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연극영화학과 학생 80여 명은 거리퍼레이드, 축제 영상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젊고 활기찬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 동참하였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대학은 매년 지역 대표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역량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 재학생들은 매년 지역사회 축제 및 문화행사 참여와 더불어 벽화그리기, 치매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괴산지역 안전순찰대 및 문화유적지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우리 대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올바른 이닦기 실천을 위한 인형극 개최

우리 대학이 위탁 운영하는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월 4일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 닦기 실천을 위한 ‘반짝나라 공주와 치카왕자’ 인형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고 유익한 인형극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어린이 스스로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마련됐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형극

이날 인형극은 여러 인형 캐릭터들의 신나는 노래와 율동, 화려한 레이저쇼를 선보여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구강건강 교육도 실시하는 유익한 행사로 진행됐다.

안정좌 센터장(중원대 식품공학과 교수)은 “괴산군 어린이들의 균형적인 성장과 영양 및 위생안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행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중원대 교내에 개소한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등 전담인력이 부족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를 지원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Together We 괴산’ 지역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Together We 괴산’ 지역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재학생들과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공동체 '휴먼 오가닉', 괴산군과 함께 11월 2일 본관 CEO룸에서 지역청년, 지역상인회, 공동체 전문가, 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Together We 괴산'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청년공동체와 지역사회, 괴산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와 더불어 진행된 지역활성화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에서는 지역청년들이 준비한 청년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발전 아이디어 7건에 대한 발표의 시간을 갖고, 이 중 3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어 박재균 한국경제신문 문화기획부장이 강사로 나서 '성공하는 청년공동체의 과정과 모델'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괴산지역 청년들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강 후에는 청년공동체 '휴먼 오가닉' 멘토인 최상범 중원대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청년공동체 멘토링 사업 추진성과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2개월 간 청년 멘티들과 함께 괴산의 공동체 자원 발굴 과정을 소개했다.

▶ 관련 기사 18면

연극영화학과, 지역축제 재능기부 활발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이 ‘청주문화재 야행’ 공연을 하고 있다.

연극영화학과가 올해 충북지역의 다양한 지역축제와 문화행사에서 재학생들의 전공지식과 경험을 살려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역 대표 축제인 △충주호수축제(8.1.~5.) △청주문화재야행, 밤드리 노니다가(8.24.~26.) △괴산고추축제(8.30.~9.2.) △청주읍성큰잔치(9.1.~2.) 등에 참여해 전공지식의 현장적용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을 실천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열렸던 탄금호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충주에서 개최된 ‘충주호수축제’에서는 ‘백투더 중원 7080’ 공연을 펼쳤고, 청주의 문화유산과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특화된 문화경험을 제공하는 ‘청주문화재야행, 밤드리 노니다가’에서는 ‘청주스캔들’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며 재능을 펼쳤다.

또한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괴산 대표 축제인 ‘괴산고추축제’에서는 단체 퍼레이드 행렬 및 장기자랑에 참가해 재능을 뽐냈고,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청주성 탈환 정신을 계승한 ‘청주읍성큰잔치’에서는 ‘7080 쑈쑈쑈’ 코너를 담당하여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박용갑 연극영화학과장은 “중원대 연극영화학과 재학생들은 대학에서 쌓은 예술적 역량을 지역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지역축제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및 영화 공연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 연극영화학과는 매년 ‘찾아가는/찾아오는 연극·영화’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축제와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편집부〉

중원대 학생들의 사랑의 재능기부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중원대학생들도 괴산주민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재능기부를 펼치고 왔습니다. 뷰티헬스학과, 산업디자인학과, E.N.T(동아리)까지 다른 행사 못지않게 너무 멋진 봉사활동들을 하고 왔습니다. 활동들과 학생들 인터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괴산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괴산소방서 119 안전문화 축제’가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를 더욱 빛낸 주인공은 바로 우리대학 재학생들!! 자신들의 학과전공을 살려 네일아트, 캐리커처 등 따뜻한 봉사활동을 하고 온 그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이 손에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



▲뷰티헬스학과 재능기부 활동



▲E.N.T 동아리 공연

Q. 봉사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뷰티헬스학과
18학번 김주희 학생

A. 저는 중원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뷰티헬스학과 18학번 김주희입니다. 이번에 소방봉사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활동을 아이들이나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직접 체험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 봉사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합니다. 내년 축제도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뷰티헬스학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ㅎㅎ



뷰티헬스학과
17학번 김채이 학생

A. 저는 중원대학교 뷰티헬스 학과 17학번 김채이입니다. 오늘 봉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워낙 착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얌전히 있어줘서 더욱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18학번 박시환 학생

A. 많은 아이들이 소방체험도 하고 여기서 그림과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도 하면서 많은걸 즐겁게 즐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이들이 원하는 동물을 캐리커쳐로 그려주면 큰소리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 힘든 마음이 사라집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너무 즐겁고 재밌어 해주어서 고맙다! 오늘이 안전문화 행사인 만큼 안전수칙과 방법들을 꼭 많이 숙지해서 다 같이 안전한 생활을 해주었으면 한다.



중원어린이집 박준서 형, 누나들이 손에 이쁜 그림도 그려주고 솜사탕도 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들도 똑같이 이쁜 그림을 손에 쥐고 있어서 기뻐요. 다음에도 형, 누나들이 자주 와서 저희들하고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한민혁 기자1010hmh@naver.com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는 중원인이 되십시오.

– 장경욱 교수 인터뷰



지난 10월 29일 외교부 해외공관장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학 장경욱 교수님이 이라크 대사로 임명되는 큰 경사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떠나시는 장경욱 교수님을 저희 JR이 만나 뵙고 왔습니다.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그리고 중원대학교에 대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민혁기자 1010hmh@naver.com

1 우선 부임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다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정든 학생들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못내 아쉽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국가를 위해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라크가 우리나라의 원유 3대 수입국 중 하나인 데다 중동 안보 요충지여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2 대사님 본인에 대해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37년간 군에서 복무하였고, 군에서 전역 후 다음해인 2014년도부터 우리 대학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실전으로 경험한 리더에 대한 이론을 학생들과 교감하면서 저도 배우고 느끼려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중원대학교에서 초빙교수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교양 수업이고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전문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레포트나 발표를 통해서 학생들과 교감할 기회가 생기다 보니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돼서 제가 더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문자나, 쪽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 이라크 대사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무엇인가요?

이라크는 우리나라처럼 식민지를 경험하고 또 전쟁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나고 나라의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듯이 이라크에도 우리나라가 앞서 겪은 노력과 경험들을 잘 전수해줘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안정적으로 석유를 도입하는 여건도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또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이라크에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5 마지막으로 중원대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원대에서 생활하며 깨달은 점은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자질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자신만의 목표와 진로를 잘 선택하여 꾸준히 준비해 나가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행복은 자신이 만족할 때 가능한 것이지 남과 비교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능력을 믿고 도전적인 자세로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키워나가면, 지금의 꿈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천하장사 만만세~

– 우리대학 씨름부 –

여러분 중원대학교에 씨름부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중원대학교 씨름부가 강원도 춘천시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소양강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대학부 개인전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하여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모래판 위에 강자들 김성환, 김지혁 학생을 만나 인터뷰 했습니다.



김지혁(레저스포츠학과 16), 김성환(레저스포츠학과 17)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안녕하세요. 레저스포츠학과 2학년 김성환입니다.

김지혁 안녕하십니까. 레저스포츠학과 3학년 김지혁입니다.

Q. 수상하게 된 소감은 어떤가요?

김성환 작년에 개인전 우승하고 올해는 개인전 우승이 없어서 성적부진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1년 만에 결승에 올라와 2위 수상을 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김지혁 올해 계속 부진하다가 이번 춘천소양강배에서 결승까지 진출해 2위를 해서 다행이면서도 좋았지만 결승전 경기 도중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기권을 해야 해서 좋다는 기분보다는 아쉬움이 몇 배로 큰 대회였습니다.

Q. 씨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성환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씨름부 친구가 씨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호기심에 갔다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혁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주 개발 활동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씨름반에 들어가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개발 활동 시간에 씨름을 하다가 대회를 나가게 되었고 우승도 하면서 재능을 발견했다고 할까요.^^

Q. 씨름을 시작하고 나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김성환 중학생 때부터 합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린나이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운동하느라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김지혁 중고등학생 시절 성적부진으로 씨름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관두는 게 맞는지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Q. 자신의 인생에서의 씨름을 5글자로 표현해주세요.

김성환 터닝포인트

김지혁 나의첫번째

Q. 향후 계획 및 각오는 무엇인가요?

김성환 대학 졸업 후 제가 원하는 실업팀에 입단해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혁 올해 춘천소양강배에서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올해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준비를 잘해서 100회 전국체전에서 꼭 금메달을 목에 걸 것입니다.

Q. 중원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학우여러분들도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면 언젠가 자기가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도달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의 꼬리가 아닌 용의 머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김지혁 요즘 씨름은 예전 씨름에 비해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씨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중원대학교 씨름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 기자 djigj486@naver.com

너의 미래를 응원할게

또 다른 세계, 가슴 뛰는 꿈을 찾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미래를 준비하시나요? 여기 자신의 미래를 향해 전 세계를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장학기자 JR 전 국장이자 현재는 미국 TSI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태균 동문, 엉뚱하지만 후배들을 그리워하는 그를 만나 꿈에 대한 열정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임태균 동문
(생약자원개발학과 11학번)

1.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원대학교 생약자원개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미국 TSI(TRUST SCIENCE INNOVATION)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태균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TSI 회사는 세계적으로 환경모니터링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저는 이곳에서 환경모니터링 장비의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한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정신없는 신입시절을 버티고 초보티를 막 벗고 있는 중입니다.

2. 먼저 선배님의 학창 시절 모습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선배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굉장히 바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처럼 JR학생기자도 하고 괴산/청천 ICT 홍보단, 김장배추 뽑기 알바, 목조주택 집짓기 알바, 택견대회 참여, 언덕배기란 카페에서 밴드로 활동도 하고, 고추축제 기타경연대회도 나가봤어요! 흔히들 말하는 맛보기식 활동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1등을 한다든지,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야는 없어요! 그래도 학창시절이 보람차게 느껴지는 것은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 덕이라 생각해요. 중원대 속담으로 "읍내까지 가는 길도 한 걸음 부터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읍내까지 가는 길도 여러 가지잖아요. 우선 무언가 시작한다면,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You can do it, Just try' 시도가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3. 재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여자한테 대쉬했던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1학년 때 학과 여신으로 불리던 동기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노력했었는데, 결국은 배드엔딩으로 끝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실패한지 알 것 같아요. 아마 대학 4년 동안 그렇게 무모하고 멍청한 도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네요. ^^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쁘다 = 사귀고싶다" 라는 단순무식한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친구로 지내길 기대합니다.

4.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고 싶으신 활동이 있으신가요?

JR기자단 활동을 다시하고 싶습니다. 4학년 때 직업교육을 1년 동안 가버리는 바람에, 기자단활동도 마무리 못 하고 나온 것이 아쉽네요. 뛰어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학우들의 학창시절을 사진과 동영상 및 기사로 남기고 싶고.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모두가 재미있는 JR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사를 잘 못 쓰고 사진을 못 찍어도 기자단에 도전해보세요! 기사 쓰는 방법, 사진 찍는 방법은 들어가면 다 알려줍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학창생활도 빛나게 될 거에요!

5.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좋은 추억만큼 값진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이 현재의 직업에 이르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솔직히 직장은 전공과 다른 길을 택했어요. 취업준비는 4학년 2학기부터 했어요. 바이오 관련학과 특성상 대졸자보다는 석사를 우대하고, 실제로도 석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2년 동안 석사준비하고 30살이 다 되어서 취업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더라구요. 그 때 결심했어요. 전공과 다르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력서를 넣어보자고. 그 결과 졸업하기 전 2월에 면접을 보고 3월부터 나오라는 합격문자를 받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미래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취업준비는 입학 하자마자 시작해라!' 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직업이 있으면 대학 문턱에 들어가자마자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배로서 도움을 드리자면, 첫 직장을 찾을 때 제가 경험 했던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기업검색입니다. 제가 3학년 방학 중에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다른 대학의 3학년들은 이미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느 기업에서 공채를 하는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딘지, 필요조건이 뭔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매일 검색하세요. 또한, 우물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문과/이과로 나눌 필요 없습니다. '지방대라서 대기업/중견기업은 꿈이다' '문과니까 이러이러한 분야로 취업해야지, 이과니까 이러이러한 곳만 갈 수 있어' 식의 관점에서 취업을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 없이 얻어낸 미미한 결과에 지방대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너 자신을 알라" 메타인지를 합니다. 지금 스펙으로 갈 수 있을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격은 무엇일까? 단순히 토익이나 자격증을 필요로 한 곳이면 꾸준히 준비해서 따면 됩니다. 이와 달리, 정보가 자세히 없다면, 구인 공고란에 있는 인사담당자에게 직접통화 또는 네이버 취업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칭한 기업에 자소서 및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자소서 작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괜히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잘 못 써도 상관없어요. 우선 쓰세요. 연습하고 교수님 또는 인터넷에서 첨삭 받으세요. 이렇게 서서히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일 반복합니다. 뜻맞는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도 좋아요. 친구가 없다면 '중원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같은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렇게 1년~2년 정도 기업서칭 및 분석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추면 취업은 어렵지 않아요. 막연하면 어려운거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학창시절이 빛나는 날이 어두운 날보다 많았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중원인 화이팅!

ENGLISH CAFE에 드루와



조별과제할 공간이 없다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하며 얘기를 나눌 곳을 찾는다고?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보드게임 한 판 할 곳을 찾는다고? 각종 카드게임부터
브루마블, 클루, 마작, 다트 등 다양한 게임을 카페에서 무료로 사용가능!



맨날 책으로만 공부하는 영어가 지겨울 땐?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님들이 모이는
Hot place 잉글리시 카페! 언제든지 프리토킹이 가능하며, 원하는 교수님과 1:1 튜더링공부도 신청가능!

OPEN
월요일에서 금요일
15:00 ~ 22:30 까지
수 많은 혜택이 있는
잉글리시 카페!
위치 : 국제교류원 옆



제18호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2080 스물 건강 여든까지

중원인의 건강 스트레칭 법



추워지는 날씨 속에도 열공중인 중원대학교 학생분들 시험공부부터 취업 준비까지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계속 같은 자세로만 있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어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공부도 체력이 받쳐줘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피로를 풀어줄 간단한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5075379@jwu.ac.kr, 사진모델 : 김재덕(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5학번), 이시현(식품공학학과 17학번)

01 기지개 켜기



먼저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안하게 되는 기지개 켜기! 두 팔을 하늘로 뻗어 기지개를 켭니다.

책상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허리도 앞으로 굽고 팔은 계속 얌전히 있기 때문에 기지개를 자주 켜줘야합니다!

기지개를 켤 때 배꼽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02 어깨 스트레칭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양손을 뒤로 넘겨 마주 잡고 깍지를 낍니다. 팔꿈치를 펴면서 마주 잡은 손을 살짝 손을 위로 당기며 고개는 하늘로 향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슴을 펴주면 끝!

가슴을 펴주지 않으면 시원함이 감소된답니다~

03 한쪽 발을 다른 쪽 무릎위에 올리고 상체 들어주기

골반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고생하는 고관절과 골반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왼발을 오른 무릎위에 얹고 왼손으로는 팔걸이를 잡고 오른손은 무릎위에 올리고 상체를 왼쪽으로 틉니다. 반대쪽으로도 합니다.



뒷사람과 눈이 마주칠 경우 웃음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점!ㅋㅋㅋ

04 다리 쭉 뻗고 발끝 밀었다 당기기



이번엔 다리 쭉 뻗고 발끝 밀었다 당기기입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고 두 발을 뻗어 발끝을 밀었다 당겼다 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종아리근육도 풀어주면서 족저근막염도 예방해줍니다!

다리를 너무 과하게 올리면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어요!!

05 목 뒤로 젖히기



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버티느라 승모근*을 많이 쓰게 되는데 고개를 뒤로도 젖히고 옆으로도 돌려주면서 목과 승모근을 풀어줘야해요!

목을 앞으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젖힙니다. 이 과정을 서너 차례 반복합니다.

*승모근 : 어깨 끝과 목 사이를 잇는 근육

목을 너무 과하게 젖히면 목뒤에 쥐가 난답니다~ㅋㅋ

06 앞으로 숙이기

양손은 어깨높이로 올립니다. 어깨가 너무 올라가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목, 어깨, 등이 C를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차례로 앞으로 말아서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숙여줍니다. 이때 특히 복부에 힘을 주어 축 처지지 않게 하고 양팔은 수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바른 자세로 돌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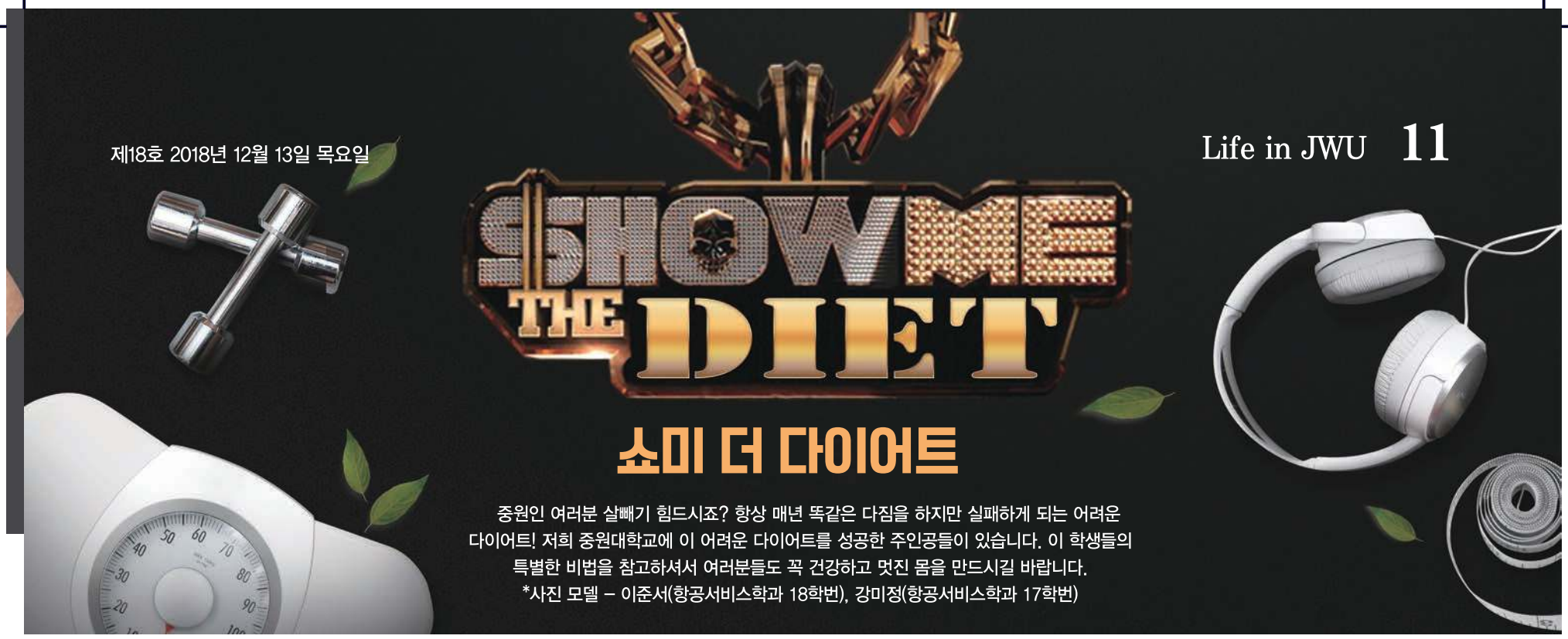
앞으로 숙이면서 팔을 내밀 때 앞사람 찌르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ㅋㅋ

07 의자에 앉아 몸 앞으로 굽히기

의자에 양발을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앉은 뒤 등이 둥근 모양이 되도록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아랫배가 다리에 닿을 정도로 구부려 등의 근육에 전체적으로 신전감*이 들도록 합니다. *신전감 : 몸의 근육이 늘어져서 퍼지는 감각



정확히 발목을 잡아주어야 스트레칭이 된답니다~



SHOW ME THE DIET

쇼미 더 다이어트

중원인 여러분 살빼기 힘드시죠? 항상 매년 똑같은 다짐을 하지만 실패하게 되는 어려운 다이어트! 저희 중원대학교에 이 어려운 다이어트를 성공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특별한 비법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진 모델 – 이준서(항공서비스학과 18학번), 강미정(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1.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는?

이준서 통통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항상 다이어트 실패를 거듭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고 있는 객실승무원은 직업 특성상 건강한 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의 꿈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정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옷이라도 체형에 따라 옷의 핏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나만의 다이어트 비법전수는?

이준서

1 보상데이를 갖으세요!



저의 다이어트 비법은 보상데이를 갖는 것입니다. 보상 데이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있다가 1~2주에 하루 정도 정해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는 날입니다. 보상데이를 가지면 '오늘은 신나게 먹었으니 내일부터 다시 힘내서 운동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나만의 운동법 찾기!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법을 찾으세요. 저는 근력운동을 좋아하는데 하는 순간에는 힘들지만 매일 매일 달라지는 모습이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람과 만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세요.

3 물 많이 마시기



매일 하루 2L 정도의 물을 섭취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공복감을 없애 폭식을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 생수 섭취가 어려워 카페인이나 당분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티 종류로 대체하여 물을 섭취하였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미정

1 1일 1식



저는 먼저 위를 줄이기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단관리는 1일 1식으로 하고 대신 한 끼는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2 계단을 생활화하기



저는 기숙사와 강의실을 갈 때, 엘레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생활 운동을 하였습니다. 운동 강도로 볼 때 계단 오르기는 다른 운동에 비해 칼로리가 소모되는 많은 운동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틈틈이 고강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3 유산균 챙겨 먹기



장에 노폐물이 쌓이면 다이어트가 효과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었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유산균으로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이준서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을 찾아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즐기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라는 말이 있듯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살이 많이 찐다고 하니 많이 웃고 잘 자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강미정 다이어트나 체중조절은 단시간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생활 속 습관을 들이시면서 꾸준하게 하셔야 요요도 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리한 식이조절 및 운동보다는 평상시에 건강한 식단과 스트레칭으로 감량된 체중을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셔서 건강한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진 기자 djgj486@naver.com

제18호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통학생을 부탁해

공강시간 보내는 꿀팁



통학생들의 고민거리 바로 공강시간!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이미 대학생이 된 지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강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우들을 위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과연 중원대학교 통학생은 공강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함께 보시죠! 김유진 기자 djgj486@naver.com

01 English Cafe 가기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아지트라고 볼 수 있는 English Cafe! 일명 잉카라고 불리는 이곳은 통학생뿐만 아니라 전교생의 아지트입니다. 잉카에 가서 지루한 공강 시간에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무료로 음료수도 마시고 재밌는 게임들도 함께 하면 긴 우주 공강도 금방 지나가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02 휴게실 가기



본관 4층 복도 끝에 위치한 휴게실은 공강에 지친 통학생들의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며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남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밤샘 과제, 잦은 행사 등으로 몸이 자주 피곤하다면, 공강 시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3 스포츠센터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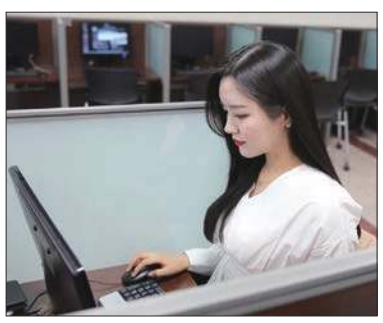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족한 건 운동! 스포츠 센터에서 공강시간 만이라도 바짝 땀을 흘리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운동하며 땀을 흘리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느새 날아가 버리죠. 저녁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기 때문에 공강시간에 찾아가면 여유롭게 눈치 안 보고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04 카페테리아 이용하기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을 해결합니다. 시간이 맞는 동기들과 카페테리아에서 맘껏 수다도 떨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여유롭게 공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속을 든든히 채워야 남은 수업시간에도 더욱 힘내서 집중할 수 있겠죠. 혼자가 아닌, 동기들이나 선후배와 함께한다면 즐거운 캠퍼스 추억도 쌓이겠죠!

05 컴퓨터실에서 과제하기



본관 4층 PC 실습실은 통학생들이 과제나 인터넷 검색 등 필요로 할 때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오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용 시간 제약도 없어서 마음 편히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공강이 생길 때마다 실습실에서 틈틈이 과제를 한다면 놀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겠죠!

06 산책하기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우리 대학은 관광지 부럽지 않은 훌륭한 전경을 뽐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으로 남기신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강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07 도서관 가기



도서관에서 배운 내용들도 복습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강 시간에 틈틈이 부족한 전공 공부, 자격증 공부 등을 하며 자신만의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장르와 종류의 서적이 많은 도서관! 마음의 양식을 쌓고 싶을 때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생각도 정리하고 지식을 습득하다 보면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8 박물관 둘러보기



공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중원대 박물관! 무엇보다 중원대 재학생들은 학생증을 지참해서 가면 무료로 박물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용돈도 지킬 수 있겠죠.^^ 자연사관, 세계종교관, 미술관 등 총 6개관으로 이루어져 둘러보면 시간이 빠르게 간답니다. 다양한 유물과 그림도 있어서 친구나 연인과 가면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답니다.

JWU 더 꼰대 라이브



요즘은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젊은 꼰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작 본인은 나이가 젊다고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우리 주변에 빈번히 나타나는 유형별 꼰대 종류와 꼰대 방지를 위한 꼰대 테스트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이준혁 기자 5075379@jwu.ac.kr

꼰대 하면 보통 "내가 네 나이때는 말이야"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놈이" 등 말투로 인한 꼰대 짓을 떠오르실 텐데, 이런 유형 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꼰대행위가 벌어진다는 점! 여러분 근처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꼰대 유형 대표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음주 강요

대학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술자리!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이런 술자리가 매번 즐겁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주 강요 때문인데요, 자신의 주량을 이미 넘게 마셨거나 술이 별로 마시고 싶지 않을 때 선배들 혹은 동기들이 자꾸 술을 강요했던 상황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02 인사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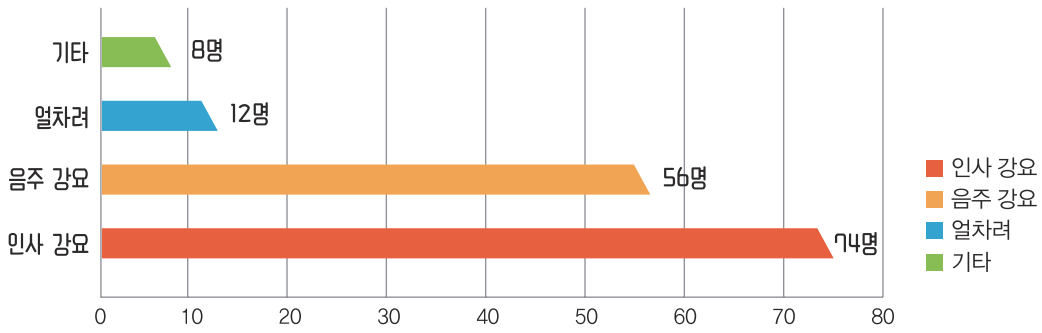
인사는 도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왜 꼰대행위인지 이해가 잘 안되신다구요?

친밀함을 표현하는 가벼운 인사말은 서로 기분을 좋게 하는 행동이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강요해 인사말을 정해 강제로 시킨다거나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쳤을 경우 심하게 한소리 듣거나 눈치를 주는 등의 행동이 바로 꼰대 짓이라는 점!

03 얼차려

흔히 말하는 '똥 군기'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는 사소한 일로인해 후배들을 불러 모아 얼차려를 주는 행동 또한 꼰대행위 중 한가지입니다. 얼차려를 주는 사람 생각은 군기를 잘 잡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규정과 체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꼰대 모습은?



중원대학교 학생들은 과연 어떤 유형의 꼰대 짓을 가장 싫다고 느낄까요?

1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장 싫다고 느끼는 꼰대 짓'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1위는 놀랍게도 74명의 학생들이 선택한 '인사 강요'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외의 결과라 많이 놀라셨나요?^^ 2위는 56명의 선택을 받은 '음주 강요'입니다. 2위는 대학생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결과이지 않나요? 다음으로 3위는 12명이 뽑은 '얼차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견이 8표로 마지막 4위를 차지했습니다. 투표에 응한 학생 중 1, 2위를 선택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Q. 인사 강요가 가장 싫은 꼰대 짓으로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A. 인사자체가 안 좋다기 보다 같은 소속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초면에 인사를 강요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연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면에 너무 강압적으로 인사 강요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Q. 음주 강요를 가장 싫어하는 꼰대 짓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택하게 된 사건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A. 과 선후배들끼리 술을 마시러 나갔었는데 그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술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만 마시려고 했더니 선배 분들이 자꾸 안마시고 뭐하냐! 빨리 마셔라 등 강요를 하는 바람에 억지로 계속 마셨더니 결국 다음날 탈이나 버렸어요.. 다음에는 몸이 안 좋거나 마시기 싫어할 땐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

평소 본인은 꼰대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 여러분들의 꼰대력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세요~

- ☐ 1.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한다.
- ☐ 2.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반사적으로 그의 단점과 약점을 찾게 된다.
- ☐ 3. "내가 너 때는 말이야" 얘기를 자주 한다.
- ☐ 4.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 ☐ 5.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 ☐ 6. 소통하려고 없어도 되는 저녁 식사나 저녁 술자리를 만든다.
- ☐ 7. 후배의 옷차림이나 인사 예절도 지적할 수 있다.
- ☐ 8. 연애사 등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참견한다.
- ☐ 9. 회식이나 모임 등에 개인적인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 ☐ 10. 이 음식을 후배는 왜 싫어하는지 의아하다.

*0~2개 : 당신은 성숙한 어른!
*3개~6개 : 꼰대의 맹아가 싹트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7개~10개: : 꼰대 경계경보 발령!! 하루 빨리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꼰대 방지 5계명

1.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2.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3.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4.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5.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이렇게 젊은 꼰대들도 많은 반면 위에 '꼰대 방지 5계명'처럼 스스로 젊은 꼰대가 되길 거부하는 자중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고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도 미래에도 존중함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변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18호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너에게 닿기를'

너에게 전하지 못한 나의 진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친구나 교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민망해서 망설이다 하지 못했던 말이 있나요? 마음과 달리 말이 엇나간 것처럼 그런 마음을 숨긴 적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여기 미처 전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고영은 기자 koh3408@naver.com

To. 이혜주 (아동보육상담학과 15학번)

혜주야. 붙어 다니면서 싸우기도 많이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때론 가족만큼 돈독하게 지냈던 거 같은데 벌써 졸업이 다가왔네...ㅠㅠ 막 학기 잘 마무리하면서 서로 좋은 곳에 취업해서 오래도록 좋은 사이 유지하면서 지내자 사.....랑...해♥



아동보육상담학과 15학번 김현옥

To. 김보원 (의생명과학과 13학번)

보원아, 우리가 알고 지낸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네.ㅎㅎ 형한테 편지 받아본 건 처음이라 반갑지~? 별건 아니고 귀여운 내 동생 보원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짧게 편지하게 됐어. 형이 예전보다 지금 살이 많이 찌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겠으니까 돼지라고 그만 놀려 이놈아. 장난이고 우리 앞으로도 오래보자 화이팅^-^~



의생명과학과 16학번 변희중

To. 류혜인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혜인아. 안녕? 나 현정이야. 내가 맨날 너가 정말 아끼는 두부 인형 잡아먹으려고 하고 계속 만지려고 해서 맨날 심장 졸이면서 나 싫어했지? 사실 두부랑 메롱이를 나도 정말 좋아했어. 앞으로 내가 만진다고 성질 좀 내지마. 예쁜 마음으로 만진 거니까 제발 눈 좀 매섭게 그만 떠. 네가 성질내도 난 널 사랑해 류혜인~!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강현정

To. 최인영 (작업치료학과 15학번)

안녕 인영아, 사실 말 못 한 비밀이 있어. 저번에 네가 옷 빌려 간 거 냄새가 너무 난다고 누가 입었냐고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입은 거란다. 미안해. 그때 운동하면서 입은 건데 내 사랑스러운 모공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었는지 냄새가 너무 향기로웠지?ㅎㅎㅎ 이 말은 여기서 해야 욕을 안 먹을 거 같아서 써본다. ㅎㅎ 널 사랑하는 지윤이가~♥



의료공학과 15학번 정지윤

To. 60기호 친구들

얘들아, 낯간지러워서 말 못 했지만 나랑 같은 방 써주서 고맙구 과제하느라 지칠 텐데 이번 학기 다들 아프지 말구 잘 보내장~! 만약 너희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나한테 먼저 와서 하이파이브 하는 사람 맛난 거 사줄게.ㅎㅎㅎ 얼른 종강해서 여행두 가고 조만간 전시회도 가장~ 항상 우정행:)



산업디자인학과 15학번 전은비

To. Mattew

Hi matt! My name is Eunha.
Thank you for taking good care of me when I worked at English cafe last year.
At that time I enjoyed working. Last year, we always played Mah-jong so I want to paly Mah-jong again with Autumn.



Eunha Park
(Airline Service sophomore)

To. 김예진 (레저스포츠학과 16학번)

예진아, 안녕? 너 친구 미송이야. 너가 매일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ㅣ 본받고 싶어. 더 화이팅해서 너가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길 바래. 도움은 안 되지만 내가 옆에서 서포트해줄게. 항상 화이팅하고 건강해라ㅣ 친구야, 11월에는 웃으면서 엽떡 먹으러 가장~



레저스포츠학과 16학번 박미송

To. 조성창 (작업치료학과 13학번)

성창 선배님, 안녕하세요! 제가 맨날 방에서 놀리고 반말하고 심한 장난쳐서 미안해요.ㅠㅠ 선배님이 정말 편하게 대해 주시기도 하고 반응도 너무 재밌잖아요...ㅜㅜ 선배님이 착하고 잘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제 맘 알죠? 앞으로도 같이 재밌게 지내요 선배님~!



작업치료학과 15학번 장영록

To. 한상민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상민이 형, 안녕? 내가 맨날 반말하고 욕하고 놀려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형이 그동안 기분 나빠하고 그랬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다 형 좋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가장 좋아하잖아. 정말이야! 앞으로 더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잘 지내자! 고마워 형~!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7학번 심준형

To. 엄성환 (항공재료공학과 18학번)

성환아, 안녕? 나랑 같이 방 써줘서 너무 고마워. 너랑 룸메라서 좋아. 그리고 항상 내 장난 잘 받아줘서 고맙고 이번에 공군 지원하는 거 꼭 붙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이로 지내자!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꼭 성공하자! 앞으로도 내 장난 잘 받아줘~♥



항공재료공학과 18학번 정경환

To. 한만혁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만혁아, 너의 옷을 자주 빌려 입다 보니 내가 옷을 사야 될 부담을 덜 느끼게 돼서 너무 마음이 편해.ㅎㅎ 이젠 네가 옷 사러 간다 할 때 이번엔 어떤 새 옷이 생길까 기대할 정도야! 이제 와서 말하는데 마지막에 빌린 난방 셔츠 할머니 댁에 놓고 온 거 알고 있었는데 미리 말 못 했어. 이해해줄 거지? ♥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이준혁

To. 한동길 (경찰행정학과 14학번)

동길아, 안녕? 예전에는 내가 너를 빼고 돌아다니고 가까운 거리 살면서 일부러 연락도 안했는데 ^^ 이제는 너가 내 연락을 안 받는구나.. 이해하마. 쇼핑몰 차렸던데 MOV 대박 나길 바라면서 모든 일에 건승해라! 내가 항상 응원할게, 친구야! 그럼 나는 이만 졸업할게. ^^



경찰행정학과 14학번 김지수

전지적 친:구시점

여러분이 매일 보는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까운 사이인 만큼 남들은 모르는 친구의 장점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친구들의 꼭 들려주고 싶은 장점을 소개합니다. 고영은 기자 koh3408@naver.com

제 친구 만능 A학생을 소개합니다!



1. 반전 매력의 그녀

A학생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동그랗고 귀여운 외모에 친근한 사투리를 쓰는 모습에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첫인상과는 반대로 똑 부러지고 카리스마 있는 반전 매력도 있습니다. 마냥 귀여울 것만 같았던 A학생이 학과 임원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학과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더 반했습니다.(부끄)

단서 1 : 제보자는 A학생과 1학년 동기!
단서 2 : A학생은 학과 임원이다!

2. 청소의 달인

깔끔한 성격으로 청소도 잘합니다. 기숙사의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말끔히 청소하는 모습에 제가 매일 상쾌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항상 바닥이 깨끗하고 이불 정리도 잘 되어있으며 화장실 청소 또한 잘 합니다. 기숙사 화장실이 항상 깨끗했던 이유는 A학생 덕분이었습니다. 우렁각시처럼 항상 조용히 청소해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친구가 제 친구라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단서 1 : 제보자는 A학생과 룸메?!
단서 2 : A학생은 깔끔한 성격!

3. 미래의 객실 승무원

A학생은 어피어런스*의 달인입니다. 제복을 입는 날마다 친구들의 머리를 말아줍니다. 정말 완벽하게 머리를 말기 때문에 친구들이 A학생을 매일 아침마다 찾습니다. A학생의 손을 거친 날은 완벽한 어피어런스로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피어런스 : 승무원 헤어 및 메이크업

단서 1 : A학생은 항공서비스학과의 금 손!

매일 보는 친구이지만 매일 귀엽고 약간은 까칠한 제 친구 만능 A학생! 그래, 윤아야! 격하게 칭찬한다♥ - 미정이가★

사진모델 : 강미정(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윤아(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최강 인싸 B학생을 소개합니다!



1. 따뜻한 이미지의 소유자

B학생은 첫 만남에도 사람을 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B학생과는 이번 연도에 총학생회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B학생은 총학생회 국장 중 한명이었고 편안한 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인상도 좋았지만 첫 회의 때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서 1 : 제보자는 총학생회에 가입되어 있다.
단서 2 : B학생은 총학생회 국장 중 한명!

2. 모두를 사로잡는 눈웃음?

B학생은 모두가 좋아하는 활기찬 성격으로 대인관계 능력이 좋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는 바로 눈웃음입니다! 눈웃음이 정말 예뻐서 어른과 아이들 가리지 않고 다들 칭찬을 합니다. 저도 B학생의 눈웃음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단서 1 : 아무리 눈웃음이 예뻐도 남자에게 남자가 예쁘다고 하긴 어렵다. 제보자는 여학생?!
단서 2 : B학생의 눈웃음은 잡식성?!

3. 미래의 법원 공무원

법무법학과라는 전공에 맞게 법무지식과 실무능력이 뛰어납니다. 법무법학과에서 진행한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며 평소와는 다른 지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4년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꼭 B학생의 장래희망인 법원 공무원직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서 1 : 제보자도 법무법학과 일까? B군 가는 곳마다 있어..
단서 2 : B학생은 법무법학과의 뇌섹남!

누구보다 착하고 상냥한 B학생! 민석 오빠와 지금처럼 좋은 선후배 사이로 지내고 싶고 모두에게 장점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 후배 박정민 올림.

사진모델 : 박정민(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권민석(법무법학과 12학번)

제 절친 C학생을 소개합니다!



1. 그녀는 이타심 그자체!

작년 4월 FOS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C학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활발하고 사교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세심하며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학과 행사용으로 쓸 짐을 옮기고 있었을 때 저를 보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달려와 같이 들어주었습니다.

단서 1 : 제보자가 남자라면, 여사친이 짐 들어준 것을 공개하지 않겠지! 제보자는 여학생?
단서 2 : C학생은 콩한쪽도 나눠먹을 성격의 소유자!

2. 쿠키 만들기의 달인

C학생은 베이킹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쿠키를 잘 만듭니다. 주말에 집에 다녀올 때는 가끔씩 쿠키를 구워서 학교에 가져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쿠키를 구워 와서 친구들에게 나눠 주는데 전문 베이커가 만든 것처럼 맛도 좋습니다.

단서 1 : 제보자는 C학생의 쿠키를 맛 본 친구.
단서 2 : C학생은 마치 전기장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어!

3. 학과 공부에 열정적인 그녀

식품공학과인 학과 특성으로 C학생이 실험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신중하게 시험관을 다루는 모습은 CSI를 연상케 합니다. 식품에 대한 전공분야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전공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입니다.

단서 1 : 제보자는 식품학과는 아니다!
단서 2 : C학생은 식품학과다!

착하고 열정적인 C학생! 시현이와 늙을 때까지 절친 사이를 유지하고 싶고 매일매일 칭찬해주고 싶어요! 베프 진민이가.

사진모델 : 박진민(경호학과 17학번)
이시현(식품공학과 17학번)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고 칭찬하고 싶은 중원인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JR은 중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 중원대학교 학생기자단 JR - Jungwon Reporters / 인스타 그램 DM: jungwon_univ_jr

제18호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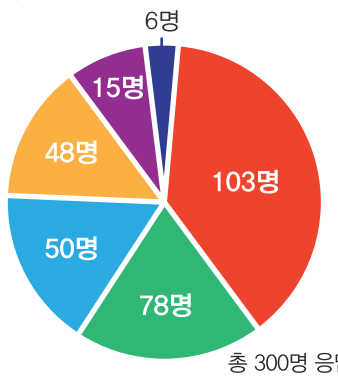
예비 중원인의 Interview

중원대 미래 인재들의 첫 발자국을 담다



2019학년도 수시 면접에 많은 수험생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해 면접을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에 지원한 19학번이 되고 싶은 수험생들과 자녀를 응원하는 학부모님의 첫 발자국을 만나보시죠. 고영은 기자 koh3408@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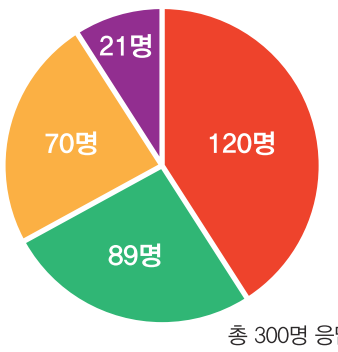
1. 대학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것



총 300명 응답

- 전공 교과 과정
- 현장실습[인턴십]
- 영어강좌, 해외교육기회 [교환학생, 해외파견 등]
- 교양 교과 과정
- 학사제도
- 비교과 과정[특강, 세미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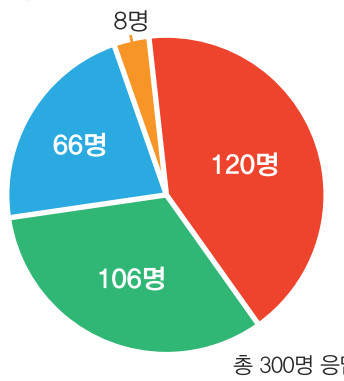
2. 대학 '교육여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것



총 300명 응답

- 우수한 교수진
- 다양한 장학금 제도
- 교육시설
- 등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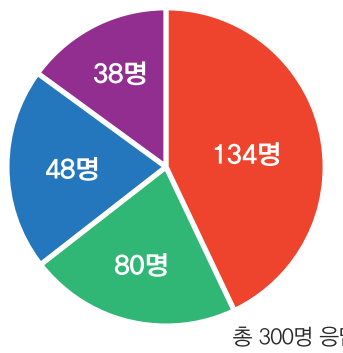
3. 대학 '교육환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것



총 300명 응답

- 생활지원시설 [기숙사 등]
- 편의시설 [휴게실, 식당, 매점, 서점 등]
- 학생활동공간 [학생회실, 동아리방 등]
- 행사시설 [강당, 공연장 등]

4. 대학 '학습지원제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것



총 300명 응답

- 지도교수의 학생지도
- 사회진출지원 서비스
- 학생자치활동지원
- 학생행정서비스

Q. 중원대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것 또는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조현빈 간호학과에 여러 개의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의료봉사를 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꿈이다 보니 임상실습이 가장 하고 싶고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이팅게일처럼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멋진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제민 경찰행정학과 홈페이지나 뉴스를 보고 다른 학교 경찰행정학과 보다도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중에서 매주 캠퍼스안전순찰대 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멋져 보이더라구요.^^ 저도 캠퍼스안전순찰대 일원이 돼서 꼭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대 되는 건 동아리 활동이입니다. 항상 대학생 선배들의 동아리 생활이 부러웠습니다. 하고 싶은 동아리는 다하고 싶습니다. 욕심이겠죠.^^



김지현 저는 고등학생 생활을 벗어버리고 드디어 대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선배들과 후배들의 관계도 설레고 긴장됩니다. 중원대학교 선배님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하고 있는데 서로 돈독해 보이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입학해서 하루 빨리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박수은 저는 기숙사 생활이 가장 기대가 되고 하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갈 때 기숙사를 가잖아요.^^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하니 성인이 돼서 독립한다는 자립심도 생기고 진짜 대학생이 된 듯한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기숙사를 들어가 봤는데 시설이 정말 좋아서 꼭 합격해서 여기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다영 저도 기숙사 생활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한 번도 부모님 곁을 떠나서 생활 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집을 나와서 생활 한다고 하니 두려움 보다는 자유를 만끽한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과 생활하는 것이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Q.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현빈 대학은 무엇보다 학점관리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학점관리는 성실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실이 좌우명이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적 우수장학금을 꼭 받고 싶습니다. 대학교 오면 장학금 한번은 받아야죠. 웃음



여제민 대학생활은 선후배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기들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해야죠.



김지현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텐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기숙사 생활로 더 많은 사람들과 자주 있게 될 테니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수은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운데 대학생이 된 만큼 초심을 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초지일관의 마음을 먹고 졸업 할 때까지 저의 목표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



신다영 저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선후배 사이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

학부모님도 잠깐 만나 볼까요?



간호학과 지원자 김은빈 학생의 학부모

Q. 중원대학교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학부모 학교가 정말 웅장하고 다양한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놀랐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고 한 번쯤 와보고 싶은 학교라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더 훌륭한 것 같네요.

Q. 자녀분이 어떤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시나요?



학부모 제 자녀뿐만 아니라 중원대 합격하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를 맘껏 즐기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대학생활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때 입시에 찌들어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과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집을 떠나 생활하는 자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웃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분위기에 푹 빠져서 공부든, 사랑이든 다 쟁취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자녀분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학부모 은빈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뜻을 품어서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빠가 응원할게! 중원대 학생들도 파이팅 하세요!

프로면접러를 위한 간절한 외침!



'면접' 이란 두 글자만 나와도 벌써 한숨만 푹푹 쉬어지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기운마저 빠지게 되는게 마음 아프지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항상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는 취업난, 계속해서 떨어지는 면접 등 절망적인 소리만 들려오니!!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무너지는 건 우리 중원인 모습이 아니겠죠? 지금부터 '면접' 이란 두 글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도록 합시다!! 한민혁기자 1010hmh@naver.com

01 면접의 뻔한 질문과 나만의 대처능력

워낙 많은 면접이 진행되다 보니 이제는 듣기 지겨울 정도의 뻔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선 뻔한 질문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01 우리 회사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
02 왜 당신을 뽑아야 하나요?
03 지난 경력에 대해 요약해서 말해 보세요.
04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05 마지막으로 질문 있나요?

흔히들 알고 있는 면접 질문이지 않나요? 면접관들은 하루에도 몇 십에서 몇 백 명까지 많은 면접자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비슷한 대답들을 듣기 마련입니다. 저런 뻔한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속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01

"회사는 **년도에 설립되고 매출**만큼을 올렸습니다" 등에 뻔한 대답은 절대 사절! 면접관들을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뻔한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사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전망, 그 미래에 대해 내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지 등을 말해야 면접관이 더 우리말에 귀 기울여 줄 겁니다.

▶올바른 답변: "이 회사는 앞으로 **분야 쪽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장점인 ** 등을 통해 회사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02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려고 옆에서 같이 면접을 보고 있는 경쟁자들을 내리깎는 발언은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비하하며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올바른 답변: 저에게는 **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저는 **에 재능이 있고 앞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회사에서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싶습니다.

03

나는 분명히 이력서에 다 써놨는데 왜 물어보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관들은 단순히 이력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닌 그 너머의 것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조직에서 얼마나 내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꽃피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올바른 답변: 이때는 이력서에 적힌 내용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비출 수 있는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04

면접자에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 단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 곤란하겠죠?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경험으로 인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했던 경험까지 말한다면 완벽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답변: 실패해서 되돌리고 싶은 과거를 말하지만 그 경험으로 자신이 얻은 것들을 설명해 더욱 어필을 하면 좋습니다.

05

"이런 질문쯤이야 가뿐하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화룡점정의 기회!! 면접실을 나서기 전에 면접관의 마음에 여운을 남길 한 방을 던져야 합니다.

▶올바른 답변: 이 질문에서는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이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02 첫인상은 3초! 올바른 면접복장

사진 모델 – 엄동도(경영학과 12학번), 김민아희(경찰행정학과 17학번)

여자편



Q.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여자 면접 복장으로 가장 기본 =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투피스 정장!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똑같은 스타일로 입는 것보다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피스에 재킷을 입거나 흰색 블라우스 대신 자신의 피부 톤에 맞는 파스텔 톤 블라우스도 추천해드립니다!

Q.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정하고 신뢰 가는 인상을 남기는 것! 만일 자신의 머리가 단발정도의 기장이라면 머리를 안쪽으로 드라이하여 말아주는 것이 가장 단정해 보인다고 합니다!

Q. 무엇을 신어야 할까요?

만약 자신이 키가 큰 편이라면 굽이 3cm 정도의 구두를, 반면 작은 키가 콤플렉스라면 최대 8cm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편한 높이의 구두를 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자편



Q.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남자 면접 복장 또한 정장이 기본! 하지만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검은색 정장보다는 네이비 또는 회색 계열의 정장을 추천 드립니다. 셔츠는 흰색 린넨셔츠나 블루 계열 셔츠가 가장 무난한데요. 또한 여름에는 반팔 셔츠를 입는 것도 괜찮지만 재킷은 꼭 입어야 한다는 점!

Q. 넥타이는 어떻게 매야하나요?

넥타이는 자신의 얼굴에 잘 맞는 밝은 계열의 색상! 넥타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튀는 무늬가 있는 넥타이는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Q. 양말은 어떤 걸 신어야 하나요?

남자 면접 복장은 보통 어두운 계열의 정장으로 면접장에서 의자에 앉았을 때 바지 밑단이 올라가죠? 그때 발목이 보이기 때문에 정장 색에 맞춰서 어두운 색의 양말을 신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18호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IDEA

지역활성화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나만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다!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만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멋진 중원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괴산을 자신들이 생각한 창업 아이디어와 결합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함께 살펴보시죠.

한민혁기자 1010hmh@naver.com

최우수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박은하, 강현정



IDEA

괴산 전통시장 비행모드 – 괴산 전통시장에서 서비스를 플러스하다.

현재 괴산전통시장은 5일장이 활성화가 되어있지만, 시장의 주된 고객은 지역 주민들과 노인 연령층입니다. 5일장이 열려도 이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1:1 매칭으로 상인들의 판매 서비스의 능력을 향상해드리고 외적인 모습도 바꾸어 괴산 전체가 발전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항공서비스 학생들이 1:1 매칭으로 상인들과 함께 장사하면서 서비스 정신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산막이옛길 주차권을 받으신 분들에게 괴산 전통시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같이 발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2가지 서비스들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괴산 전통시장에 방문하여 많은 먹거리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수 심희조, 괴산 지역 군민



IDEA

애플랜드의 사과 이야기

저는 산막이옛길 인근에 있는 "애플랜드" 체험을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애플랜드' 에서는 사과 하나로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과나무 분양, 천연비누 만들기, 사과 따기, 전통주, 식혜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안전한 먹거리를 자신의 손으로 가꾸고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농촌 생활에 대한 이해와 경험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려 식품공학과 16학번 김가연



IDEA

못난이 사과 활용 아이템 창업동아리 다온

저희 창업동아리 다온은 괴산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과 잼' 기부를 괴산 군청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이번 아이디어는 봉사활동을 하던 중 생겨나는 재료 비용과 자연재해 피해 농가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착안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과 과수원에서 품앗이를 해서 낙과를 받고 그 중 모양이 예쁜 사과를 골라 일명 '못난이 사과'를 판매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사과잼 재료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저희가 만든 잼과 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자 생각해 냈습니다.



장려 한국학과 15학번 이지선, 12학번 김무한



IDEA

로컬푸드 사용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

제 아이디어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식 즉, 로컬푸드를 사용 하는 음식점에 인증제도를 부여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시장상인회가 심사를 통해 선별된 음식점에 인증제도를 부여하고 지역주민 및 여행객들도 안전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소비함으로써 전통시장 경제도 활성화하고 나아가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장려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최현준, 송대한



IDEA

괴산 청년 고만이 – 괴산 청년이 만드는 고추만두

저는 괴산의 특산물인 고추를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 모양의 만두를 만들고 이름을 '괴산청년 고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몇 가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첫째, 로컬푸드 이용하기입니다. 로컬푸드를 이용해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추로 만든 다양한 음식입니다. 저희가 처음 선보인 '고추만두' 뿐만 아니라 고추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상품성의 다양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SNS를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

중원의 사랑을 싣고



가을이 되면 찾아오는 청춘의 현장, 어디라구요? 네! 맞습니다. 대학축제! 아시다시피, 올해 중원대 축제는 즐거움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해지게 만드는데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건강과 관련된 부스를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건강속으로 고고~!

이준혁 기자 5075379@jwu.ac.kr

01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건강지킴이들!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주관한 건강검진 부스에서는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검사 항목당 천원에 폐활량 검사와 채혈검사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검진 부스에서 폐활량 검사로 자신의 폐 건강 측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검사를 받은 학생이 결과를 보고 있는 모습.



임상민
(13학번 임상병리학과)

Q. 다른 학생들과 축제를 즐기고 싶으셨을 텐데, 부스행사에 참여한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A. 올해 건강검진 부스에서는 어떤 주제로 참여해야할지 고민을 많이했어요. 그 중, 학생들에게 가장 쉽고 도움이 될 만한 폐활량검사와 채혈검사를 기획하게 됐죠! 4학년이라 마지막인 축제 활동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Q. 부스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한마디로 하자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방문해주었고,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생들 덕에 봉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없어도?(웃음) 임상병리학과 많이 사랑해주시고, 건강검진부스는 매년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We will be back! 많이 방문해주세요!

02 학생들의 금연성공을 위해!

"올해는 끊어야지", "한 달 뒤에 끊는다", "딱 한 갑만 피고, 금연시작이다!!" 하지만.. 다사다난한(?) 캠퍼스 생활에서 안 피우고는 못 배긴다는 우리의 학우들을 위해! 충북금연지원센터의 금연상담 부스에서는 흡연의 심각성과 보다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 중원대 학생들이 금연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김성희 금연상담사
(충북금연지원센터)

Q. 외부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 이런 부스를 만들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A. 충북지원센터 간담회 자리에서 중원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금연프로그램 지원 내용을 검토하시고, 축제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기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했답니다. (웃음)

Q. 부스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A. 흡연자 비흡연자 구분 없이 폐활량을 측정해서 폐 나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폐활량을 측정 시, 비흡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는 반면, 흡연을 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친구들끼리 왔을 때 서로 비교하며 금연을 해야겠다! 결심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준비한 취지에 맞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금연 프로그램을 짜서 다시 오겠습니다! 올해 흡연으로 방문한 학생들! 내년엔 금연해서 만나요!

03 중원인의 따뜻한 마음이 세계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의 감정을 기억하시나요? 유니세프 부스에선 도움 그 자체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키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 수 있는지를 주제로 활동한 부스였습니다.





◀ 어떤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이지은 선생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Q. 유니세프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유니세프에서는 전세계분들의 후원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거나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중원대학교 축제에 처음 참여하셨는데, 생각하신 것만큼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A. 저희 유니세프에서는 각 학교축제마다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 축제에도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참여도도 높아서 기분 좋게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뻗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정성이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 여러분이 주신 기금은 학교 전략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동문, 학부모, 기업체 인사, 교직원, 독지가, 중원대에 관심있는 모든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참여 방법

1. **현금 즉납**
2. **무통장 입금 |** 아래의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세요.
   농협 301–0018–0977–31(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07855(중원대학교 장학기금), 국민 615801–04–211393(중원대학교 발전기금)
3. **자동이체 신청 |**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신청전화 043–830–8076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입금 확인)

■ **문의처 |** 전화 (043)830–8076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관리팀) / 팩스 (043)830–8079

제18호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JUNG WON FESTIVAL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총장님의 대회사



중원 청소년 문화 복지센터 아이들의 깜찍한 우쿨렐레 공연



연극영화학과의 시선을 사로잡는 파워풀한 댄스 공연



가지각색 소망들로 이루어진 소망나무! 이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해요!



Unicef 동아리 부스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학생들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 중원대 병원으로 건강검진 받으러 오세요~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을 적어 희망나무에 소망종이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중원대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중원대 맛집!'



입이 딱 벌어지는 무대! 역시 길구봉구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무대네요~



비와이 너란 남자!!



중원대 다같이 머리위로 손들어!! 뛰어!!



청하대!! 너무 예쁜 미모에 남녀노소 쓰러져 버리기



다함께 치즈~



총장님도 학생들과 같이 축제에 참여하시는 중~ 훈훈한 중원대의 모습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감미로운 발라드



치명적인 보이스의 완벽한 무대에 '축제 열기 후끈'



2등이라니!! 와락 안기는 감동의 포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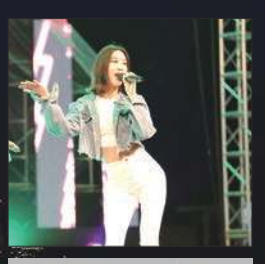
역시 1등 클라스~ 분위기 업!!



정말!! 훈훈한 투샷! 상은 은제나 좋은 것~



총학생회 미르, '축제 1일차 고생했어요~'



무대를 후끈후끈하게!



학생들이 무대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집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